

## ●일일스터디\_표준안...

박정원 / 조선일보 / 2026.06.22. (월)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최후 수단'이라던... 부동산 증세 현실화	경제	톱
2	"어르신, 반찬 배달 왔어요" 독거노인 돌보는 우체국	사회	
3	하이닉스 시총 2000조 돌파...27년 삼성전자 천하 흔들린다	경제	

### (1)기사/뉴스요약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선진국 대비 우리의 보유세가 낮으며 증세 필요성을 언급한 지 2주 만이다. 이 대통령이 '최후의 수단' 이라고 했던 부동산 증세가 집권 2년 차에 결국 현실화하는 것이다.

김 실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명목 10% 후반 경제의 환희, 낯섬, 그리고 두려움' 이란 제목의 글에서 반도체 기업들의 호실적으로 인해 앞으로 가계와 기업의 손에 돈들이 시차를 두고 파도처럼 밀려올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과거 이런 유동성이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려는 경향을 반복해왔다" 며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 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의 연이은 증세 예고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7월 말 공개할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부동산 세금 강화안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 및 고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비거주 1주택자에 주어지던 양도세 장기 보유 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부동산 증세에 대해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으려 했던 시도는 모두 실패했고 임차인 부담 증가라는 부작용만 남겼다" 며 "보유세를 높이면서 양도세도 같이 올리는 정책 방향은 매도 유인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자충수에 가깝다" 고 말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주택 공급 부족과 전·월세 불안을 방치한 채 세금만 올려서는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막기 어렵다" 며 "초과 세수로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낫다" 라고 말했다.

**요점: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보유세와 양도세 증세 예고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7월 말에 공개할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부동산 세금 강화안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 (2)기사/뉴스요약

"우체국입니다. 반찬 배달 왔어요."

지난 18일 오전 9시 50분, 전남 강진군 군동면의 한 주택 앞. 강진우체국 집배원 김호희(31)씨가 닭볶음탕과 열무김치가 든 가방을 들고 대문을 두드렸다. 잠시 뒤 집주인 신명식(100)씨가 나왔다. 신씨는 김씨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서울 사는 증손자가 곧 결혼한다" "간호사 딸이 얼마 전 승진했다" 며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냈다. 5분 남짓 이야기를 나눈 김씨는 다음 배달을 위해 길을 나섰다. 대문 앞에 서서 김씨를 배웅한 신씨는 우체국 트럭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한참 동안 바라봤다.

김씨는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어 하지만 다음 배달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며 "오늘 오전 반찬 배달을 해드려야 하는 집만 12곳" 이라고 했다. 김씨가 차로 5분을 달려 도착한 강진읍의 다른 주택에는 수년 전 아내와 사별한 박종석(73)씨가 살고 있었다. 치아가 거의 없고 거동도 불편한 박씨를 위해 김씨는 문밖에 있던 소포와 물건을 정리해줬다. 박씨는 그런 김씨에게 "바쁘데 어서 가보라" 며 손사래를 쳤다. 고마움과 미안함이 섞인 표정이었다.

편지와 소포를 배달해야 할 김씨가 마을 독거 노인들을 살피고 다니는 건 강진우체국이 시작한 ‘우체국 식사 배달 서비스’ 때문이다. 독거 노인 50명에게 매주 목요일 강진 노인복지센터에서 마련한 일주일치 반찬을 배달하는 사업이다. 강진우체국 소속 집배원 27명 중 5명이 자원했다. 나머지 집배원 22명은 반찬 배달을 나간 동료들의 우편 업무를 분담해준다.

사업 첫날인 18일 본지가 집배원들의 반찬 배달길에 동행해 보니, 이들은 배달은 물론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가벼운 집안일을 거들어주는 한편 말동무 역할까지 했다. 강진선 강진우체국 물류과장은 “반찬을 배달하는 집배원도, 남아서 업무를 나눠 맡은 집배원도 업무량이 많아 졌지만 추가 수당은 없다”며 “그럼에도 ‘지역 어르신들이 모두 내 부모님 같다’며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대표적인 ‘소멸 위험 지역’이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젊은 여성 인구(20~39세)가 65세 이상 인구 수의 20%에 못 미친다. 강진의 노령화 지수(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 역시 518.9%로, 전국 평균(186.7%)의 세 배를 웃돈다. 사실상 ‘자연 소멸’ 단계에 진입한 지역인 셈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독거 노인을 위해 식사 배달을 해왔지만 담당자가 두 명밖에 없어 일손이 턱없이 부족했다”며 “노인들이 사시는 집이 대체로 외진 곳에 있어 배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체국 집배원들이 독거 노인 돌봄 사업에 가세하고 나선 것이다.

우체국공익재단은 강진우체국에서 시작한 이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구 고령화 추세 속에서 강진군 외에도 소멸 위기에 처한 곳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 통계를 보면 2015년 3곳이었던 소멸 위험 지역은 지난해 62곳까지 늘었다. 우체국공익재단 관계자는 “7월까지 이번 사업에 참여할 우체국을 더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편 배달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노인 돌봄 사업은 우체국 입장에서도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 통계를 보면 편지 같은 일반 우편 물량은 2015년 35억3000만 통에서 2024년 20억8000만 통으로 10년 새 41.1% 줄었다. 이런 가운데 우체국은 전국 우편망을 활용한 공공 서비스 확대에 나서고 있다. 2022년 시작한 ‘복지 등기 우편 사업’이 대표적이다. 도움이 필요하지만 정보 부족 등 이유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의심 가구에 집배원이 방문해 생활 실태를 확인하는 사업이다.

**요점: 강진우체국은 ‘우체국 식사 배달 서비스’를 통해 마을의 독거 노인을 살피고 있다. 우편 배달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 새로운 활로로 자리잡고 있다.**

### (3)기사/뉴스요약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보통주 시가총액의 95% 수준까지 따라붙으며 양사 간 격차가 역대 최소로 좁혀졌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 확대에 힘입어 SK하이닉스가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2000년 이후 약 27년간 굳건히 유지돼 온 삼성전자 중심의 시가총액 구도에 지각변동이 감지되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9일 종가 기준 삼성전자(005930) 시가총액은 2069조원, SK하이닉스(000660)는 1969조원으로 집계됐다. SK하이닉스 시총은 삼성전자 보통주 시총의 95.17% 수준으로, 종전 최고 기록인 지난 5월 28일의 93.17%를 넘어섰다. 특히 장중 한때 시가총액이 2051조원까지 늘어나며 양사 격차가 더욱 좁혀지기도 했다.

삼성전자 우선주를 포함해 계산해도 격차는 크게 줄었다. 삼성전자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한 시가총액 대비 SK하이닉스 비율은 87.63%로 집계됐다. 최근 10년 평균인 22%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삼성전자는 2000년 이후 줄곧 국내 증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지켜왔다. 1990년대에는 한국전력이 시총 1위를 장기간 유지했고, 1999년에는 KT가 선두에 올랐다. 삼성전자는 당시 한국전력과

포스코에 이어 시총 3위에 머물렀지만 이후 빠르게 몸집을 키우며 2000년부터 국내 증시 왕좌를 차지했다. 이후 약 27년 동안 단 한 차례도 1위 자리를 내준 적이 없다.

양사 간 격차는 AI 반도체 시장 성장과 함께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삼성전자 주가가 1년 전 5만 9800원에서 가장 최근 종가 기준 35만4000원으로 약 498% 상승하는 동안 SK하이닉스는 같은 기간 1024% 급등했다.

시장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 선점 효과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분석한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핵심 공급업체로 자리매김하며 AI 인프라 투자 확대의 직접적인 수혜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외에도 스마트폰, 가전, 디스플레이 등 사업 포트폴리오가 방대해, AI 메모리 호황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분산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가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반면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사업에 집중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며 “반도체 수출 슈퍼 호황 사이클 지속 기대가 큰 만큼 향후 양사의 시총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에탁증서(ADR) 상장 추진도 투자 심리를 강하게 자극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ADR 상장이 현실화될 경우 해외 투자자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글로벌 반도체 지수 편입 가능성까지 열려 SK하이닉스의 몸값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지난 8일 블랙먼데이 이후 지수 정상화 과정에서 SK하이닉스의 상대적 강세가 부각되고 있다”며 “이르면 7월 ADR 상장이 이뤄질 경우 해외 투자자 접근성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편입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흥미로운 점은 SK하이닉스의 추격에도 삼성전자 역시 사상 최고 수준의 기업가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점이다. 삼성전자는 이달 초 국내 상장사 가운데 처음으로 시가총액 20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글로벌 자산 순위에서도 비트코인을 다시 앞질렀다. 양사 간 격차는 좁혀지고 있지만 삼성전자 역시 AI 반도체 수혜 기대 속에 몸집을 빠르게 키우고 있다.

시가총액 집계 사이트 컴퍼니즈마켓캡에 따르면 19일 기준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약 1조5220억달러로 글로벌 자산 순위 12위에 올랐다. 비트코인은 약 1조2760억달러로 15위에 머물렀다. 양측 시가총액 격차는 약 2460억달러다. SK하이닉스 역시 시가총액 약 1조2480억달러로 글로벌 자산 순위 16위를 기록하며 비트코인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요점: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보통주 시가총액의 95% 수준까지 따라붙은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ADR 상장이 현실화될 경우 해외 투자자의 접근성 개선과 글로벌 반도체 지수 편입 가능성까지 열려 기업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일키워드

순번	키워드	설명	출처
1	지방소멸위험지수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으로, 이 지수가 0.5 이하일 때는 소멸 위험이 큰 것으로 정의된다.	시사상식사전
2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매기면 세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는 이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하는데, 이때 곱하는 비율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이다.	조선일보
3	데드크로스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아래로 뚫는 현상으로, 골든크로스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시사상식사전